

【특집: 근현대 국가 권력의 차별과 공동체 관리】

일제 파시즘기(1937-1945) ‘멸사봉공 (滅私奉公)’ 표어의 성격

문경득* (전주대학교)

이 논문은 1937년에 등장한 멸사봉공 표어의 성격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제국주의 일본은 파시즘적이거나 그에 준하는 기능적 등가물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멸사봉공의 의미장과 당대의 파시즘 발언을 비교하여 멸사봉공 표어의 파시즘적 성격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유교적 표현으로 여겨지는 멸사봉공 표어에는 유교 이념에서 중시한 윤리적 가치판단이 없이 파시즘적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무조건 희생하라는 표어임을 밝혔다. 또한 멸사봉공을 발언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극단적 국가주의를 내면화했음을 확인했다. 즉, 대한민국에서 파시즘적 일본제국의 제도와 문화가 민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재현되었다. 따라서 멸사봉공 표어는 제국주의 일본의 파시즘적 성격을 표상하며 탈유교적이고 파시즘적인 근대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개념사, 공, 사, 파시즘, 제국주의 일본, 유교, 근대성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 (kd2003@jj.ac.kr)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www.kci.go.kr

I. 서론

멸사봉공(滅私奉公)의 뜻은 사전에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힘씀’이라고 나온다. 이 표어는 멸사와 봉공이라는 두 단어가 1937년 무렵에 합쳐져 처음 등장했고 최근까지도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 한 정치인이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당의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거나(중앙일보 2023/10/24),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한 인물들이 박정희를 기리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멸사봉공’했다고 평가하는 기사(매일신문 2023/10/26) 등에서 등장하고 있다.

일단 1937년이라는 구체적인 연도는 잠시 미뤄두고 멸사봉공의 뜻부터 살펴보면, 멸사(滅私)는 이미 『서경(書經)』에서 “공으로써 사를 멸하면 백성들이 믿고 복종할 것이다”라는 구절에서부터 보인다.¹ 봉공(奉公)은 멸사보다는 후대의 단어로 주로 ‘관직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한다’는 뜻으로,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의 편명으로도 쓰였다.

일본의 봉공은 ‘호코(ほうこう, 奉公)’라고 하며 가마쿠라(鎌倉) 막부 당시 쇼군(將軍)이 고케닌(御家人)이 쌍무적으로 맺은 계약관계에서 쇼군이 고케닌에게 내

1 『서경』 주서(周書) 주관(周官) 15장 : “以公滅私 民其允懷”

려준 ‘은혜’에 보답할 의무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고케닌의 호코는 교토(京都)를 경비하고 전쟁 시 군사를 거느리고 참여하거나, 경제적으로 건축과 수리에 자금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을 뜻한다(이원식 2021).² 이처럼 멸사봉공이라는 표어의 사전적 의미나 멸사와 봉공 각각의 유래와 뜻만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멸사봉공 표어의 등장 시점인 ‘1937년’이 중요해진다.³ 1937년은 일제가 ‘루거우차오(蘆溝橋) 사건’을 날조하여 중일전쟁을 일으킨 해이다.⁴ 이후 1945년 8월에 일제가 패망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전쟁이 시작되는, 일제 파시즘이 본격적으로 ‘과격화(radicalization)’한 시기가 바로 1937년이었다.⁵ 따라서 1937년부터 보이는 멸사봉공이라는 표어는 일본제국의 침략전쟁과 과격화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멸사봉공이라는 표어가 당시 사용된 맥락을 직접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주로 공(公)과 사(私) 개념에 관한 연구 중 일본의 ‘공’ 개념이 중국이나 조선의 ‘공’ 개념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면서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⁶ 이외에 공공성에 관한 논문이나 유교적 근대성에 관한 연구, 전시체제기 무도(武道) 교육에 관한 연구, 1930년 익산문묘에 관한 연구, 근대 수신교과서 비교연구 등에서 잠깐 거론되는 정도이다.⁷

2 『두산백과』의 표제어 「고케닌(御家人)」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멸사봉공’이라는 표현은 1937년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郎) 총리대신이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를 때, 각의(閣議)의 주문으로 체신성에서 보내는 선거우편의 소인표어 중 세 번째를 ‘멸사봉공, 정치를 위하여’로 하도록 했다는 기사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다(“選舉郵便에 遞信省萬全企圖,” 『조선일보』 1937/04/13). 선거 이후 5월에 하야시 총리와 민정당이 각각 ‘멸사봉공’이라는 표현을 정치적 수사로 사용하기도 했다(“時代に 合한 革新을 斷行할 外에 無道,” 『조선일보』 1937/05/04; “政府聲明에 對하여 民政黨反駁聲明,” 『조선일보』 1937/05/04).

4 중일전쟁 직후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학교와 종교단체에 ‘복지사변’에 대해 교육하고 ‘멸사봉공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라는 통첩을 보냈다(“學校、宗教團體에도 通牒,” 『매일신보』 1937/07/14).

5 ‘radicalization’은 원래 팩스턴(2005, 68)의 저서에서는 ‘급진화’로 번역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과격화’로 변경하였다. 이 개념은 파시즘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 일제 파시즘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하기에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했다.

6 공과 사 개념에 관해서는 『역사용어사전』에 김유철(2015)이 쓴 “공과 사”와 미조구치 유조(2013)의 『한 단어 사전, 공사』 등을 참조.

직접적으로 멸사봉공이라는 표어를 살펴본 연구로는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해 그 의미장을 살펴본 논문 1편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문기사를 분석해 멸사봉공 표어가 전쟁 선동의 프로파간다이자 사적 영역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선전문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문경득 2023). 다만 일제가 파시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별다른 검토가 없이 일제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멸사봉공 표어가 다른 유교적 표현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는 미처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발표한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음의 세 가지를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일제가 파시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파시즘에 관한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와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을 비교하였다. 둘째, 멸사봉공이 선공후사(先公後私) 등 유교적 표현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검토했다. 셋째, 일제를 찬양하고 전쟁가담을 독려한 조선인 엘리트의 발언을 분석하여 간접적으로나마 멸사봉공 표어가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파시즘기 동안 신문에서 멸사봉공 표어가 등장하는 기사를 추출하여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해 분석하였다.⁸

II. 멸사봉공 표어의 파시즘적 성격

1. 제국주의 일본은 파시즘 체제인가?

본 논문은 제목에서부터 일제 파시즘기라는 용어로 연구 범위인 1937년부터 1945년을 규정하는 만큼, 제국주의 일본이 파시즘 체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7 멸사봉공을 간략하게라도 언급한 논저 목록은 문경득(2023, 296) 참조.

8 일제 파시즘기 동안 언급된 멸사봉공 표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료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멸사봉공의 논지를 더 자세히 펼치고 있는 잡지의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2023년 10월 현재 온라인에서 검색이 가능한 신문 매체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파시즘(fascism)’이라는 개념부터 쉽게 정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처럼 일본제국도 파시즘 체제였는지 규정하는 일 또한 어려운 문제이다.

국내에서는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을 일본과 비교하여 그 성격을 탐색한 연구가 있다.⁹ 이런 연구를 보면 일제가 파시즘으로 과격화하게 만든 배경과 위기, 파시즘이나 나치즘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이 밝혀져 있다.

일본 학계에서는 이미 패전 직후부터 ‘천황제 파시즘’을 연구해왔으며, 특히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일본의 사상적 상황으로부터 일본적 특성을 추출하고 일본의 파쇼화과정을 분석하여 ‘위로부터 파쇼화’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일본파시즘론에 크게 기여하는 등 파시즘에 관한 연구는 계속 심화되어 왔다(안자코 유카 2001). 한편으로 역사수정주의 등을 배경으로 일본파시즘을 부정하고 대신 ‘전시체제(전쟁체제)’, ‘총력전체제(총동원체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총력전체제에 의한 사회변혁과 전후 연속성 문제를 세계사적 규모의 사회이행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를 적극 이론화한 ‘시스템사회론’ 등이 등장하고 있다(안자코 유카 2001; 방기중 외 2006).

이처럼 제국주의 일본이 파시즘인지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사실 파시즘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파시즘이 무엇인지 정의(定義)하는 일부터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장문석은 “n명의 파시즘 연구자가 있으면 n개의 파시즘 정의가 있을 지정”이라고 했고(장문석 2010, 14), 오르테가 이 가세트(Ortega y Gasset)는 “파시즘은 언제나 ‘A이면서 A가 아니다.’”(패스모어 2016, 20)라고 할 정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멸사봉공 표어의 파시즘적 성격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해 팩스턴과 패스모어는 정의 문제에 얽매이기보다 당대의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팩스턴은 “일반적으로 파시즘적이라고 인식되는 일련의 핵심적 운동과 정권이 어떻게 살아

9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일본파시즘 연구는 김효신(2007), 나인호 외(2005), 박한규(2008), 볼프강 쉬이더(2002) 등의 연구를 참조.

움직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하면서 “어떤 고정된 본질의 표출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해 간 과정으로서 파시즘의 역사적 궤적을 추적”했다(팩스턴 2005, 51-52).

팩스모어 또한 “정의는 선택적”이라고 하면서 “파시즘의 여러 양상 중에서 일부는 우선시하고 나머지는 배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팩스모어 2016, 42). 이에 팩스모어는 나치즘이 파시즘의 한 형태인지 아닌지 논쟁하기보다 “나치가 파시즘이라는 명칭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 혹은 거부했는지, 그들이 이탈리아 파시스트 체제를 어떻게 해석했고, 그들로부터 무엇을 차용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차용한 것들을 다른 사상과 실천과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팩스모어 2016, 49).

그러므로 제국주의 일본이 파시즘 체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대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해 멸사봉공이란 표어의 의미장을 분석하는 방식 또한 ‘과거의 현재’를 추적해 당대의 맥락을 살펴보는 방식이므로 나름 제국주의 일본이 파시즘적인지 살펴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제국이 파시즘 체제였는지를 자체를 확인하는 일은 너무 방대하고 또한 본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파시즘, 그중에서도 특히 독일 나치즘이 과격화되어 침략전쟁과 학살을 벌인 점을 염두에 두고 일본제국의 파시즘적 성격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단, 여러 지역의 파시즘이 발전해 간 양상을 추적한 팩스턴은 제국주의 일본은 파시즘 체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국주의 일본이 파시즘을 모방하였으며 파시즘의 특징을 여럿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일본식 파시즘은 단일 대중정당이나 대중 운동이 없는 상태에서 통치자들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유럽식 파시즘의 영향을 받은 일본 지식인들을 무시하거나 억압”했으며(팩스턴 2005, 446-447), “제국 정권은 파시즘 특유의 대중 동원 기술을 사용했지만, 지도자들과 경쟁을 벌이는 공식 정당이나 자생적 대중 운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1932~1945년의 일본제국은 파시즘 체제라기보다는 국가가 지원하는 상당 수준의 대중 동원을 가미한 팽창주의적 군부 독재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팩스톤 2005, 449). 즉, 팩스톤은 파시스트로 구성된 대중정당의 존재가 파시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이므로 파시즘 대중운동이나 대중정당이 없었던 제국주의 일본을 파시즘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대로 일본에는 파시스트 대중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마루야마 마사오와 기사카 준이치로(木坂順一郎) 등의 파시즘 연구자들도 일본파시즘을 ‘위로부터의 파시즘’이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안자코 유카 2001, 191-192 ; 205-206).

하지만 유럽 파시즘에서 대중정당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한 파시즘의 등가물에서는 다른 요소가 해당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팩스톤은 대중정당이 “당과 열성 당원은 그 자체로 과격화를 지속시키는 강력한 추진력”(팩스톤 2005, 348)이라고 했다. 즉, 파시즘 체제가 집권 이후에 침략전쟁과 학살 등의 전쟁범죄를 벌이게 된 이유로서 대중정당을 지목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말한다면 파시즘적 과격화를 추동하는 다른 세력이 존재한다면 파시스트당과 열성 당원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과격화를 추동한 일본 군인들과 그들이 용인될 수 있었던 정치적 공간은 파시스트 대중정당, 그리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정치적 공간의 기능적 등가물이었다고 봐야 한다.

먼저 팩스톤 스스로 ‘과격화’라는 기준에서 권위주의 독재와 파시즘 정권을 구별하고 있다. 그는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과격화 사례와 스페인의 프랑코나 프랑스 비시정권, 포르투갈의 살라자르 등의 군사적 측면을 비교하면서 “권위주의 독재자들은 화려한 군사 행렬을 즐겨 사용했지만 정권의 현상 유지에 치중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을 벌인 적은 거의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파시즘 정권들은 자기 민족의 생존에 필요한 새로운 영토, 곧 생활권(Lebensraum)을 적극적으로 손에 넣지 않고는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부러 공격적인 전쟁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팩스톤 2005, 357).

이처럼 과격화와 그로 인한 침략전쟁의 필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국주의 일본의 파시즘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 일본제국의 행적을 보면 1920년

대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후 민주적으로 구성된 내각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다가 대공황 이후 위기를 겪으면서 점차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1931년에 만주사변, 1937년에 중일전쟁 등의 침략전쟁이 발발했다. 특히 1941년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전쟁은 나치 독일의 ‘레벤스라움’과 비견되는 ‘대동아공영권’을 위해 일으킨 침략전쟁이었다. 따라서 일본 제국은 권력유지를 목표로 하는 권위주의 독재나 군부 독재와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일본제국의 파시즘적 과격화를 격발시키는 역할을 한 이들은 군부의 고위 장성들이 아닌 영관급 군인들이었다. 만주사변의 계기가 된 1931년의 류타오후 사건(柳條湖事件)은 관동군의 참모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대좌와 이시와라 간지(石原莞爾) 중좌가 남만주 철도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군의 공격이라 주장하며 주변의 중국군을 공격한 사건으로 상부의 지시 없이 ‘무단’으로 일으킨 자작극이었다. 당시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통해 성립된 정당 내각은 이 우발적 사건을 전쟁으로 확대하고 싶지 않았으나 육군의 압력에 굴복했다. 결국 내각과 군부의 허락을 받은 관동군은 만주지역을 점령하고 만주국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하중문 2009, 146-147).

이 사태에서 핵심적이었던 이시와라 간지는 독일에 유학을 다녀와 직접 파시즘과 나치즘을 접했으며 사상적으로 일본의 파시스트로 알려진 기타 잇키(北一輝)와 비교되는 측면이 있다.¹⁰ 이러한 배경과 유사성을 통해 보면 이시와라 간지는 과격화를 추동한 군부 내 파시스트적 군인 세력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1931년 만주사변을 주도하고 만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관동군의 행적은 ‘표준국가’가 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령지에서 독자적인 군사·경제 제국을 세운 나치 친위대와 에티오피아로 침공해 들어가 강력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했던 파시스트 민병대를 연상시킨다(팩스턴 2005, 371, 375).

마찬가지로 중일전쟁의 계기가 된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蘆溝橋事件)에서

10 이시와라 간지와 기타 잇키의 비교는 조관자(2017)을 참조.

도 실종된 일본군 병사를 찾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연대장 무타구치 렌야(牟田口廉也) 대좌가 상부의 지시 없이 ‘독단’으로 중국군을 공격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1931년 이래로 중국과의 전쟁은 계획적인 개전이 아닌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일어났으며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는 본격적으로 과격화가 진행되었다.

게다가 이 두 사건의 장본인들은 독단적 행동에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승승장구하였으므로 이들의 행위에 군부 다수가 동조했다고 볼 수 있다. 만주사변 직후 대폭 증가한 국방헌금을 보면 많은 일본인 또한 이 군기문란의 거사를 열렬히 지지했다(하종문 2009, 147). 이러한 독단적 행동이 군부와 국민으로부터 용인될 수 있었던 점은 파시스트적인 군인들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공간’이 존재했다는 방증이다. 그러므로 관동군과 같은 일부 군인집단은 아래로부터의 과격화를 추동하는 파시스트 당원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할 수 있다.¹¹

따라서 침략전쟁이라는 과격화 양상과 이를 추동한 파시스트적 일본 군인이라는 요소를 보면, 제국주의 일본은 파시즘 체제이거나 최소한 파시스트 이탈리아나 나치독일에 준하게 과격화된 ‘기능적 등가물’이 작동했다고 봐야 한다.

2. 멸사봉공과 파시즘 이념의 유사성

제국주의 일본은 파시즘 체제였거나 그에 비견되는 기능적 등가물이었다고 한다면, 파시즘 이념과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을 당대의 맥락에서 비교했을 때 파시즘적인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비교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부터 살펴보자.¹² 멸사봉공의 의미장은 공동체나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과 봉사를 강조

11 이외에 일본 육군 내의 ‘황도파’와 ‘통제파’ 등의 다툼과 황도파 장교들이 일으킨 1936년의 2.26사건 등을 봐도 일본에서는 군인이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원과 독일 나치당원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보인다(이정용 2008).

하는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본식의 ‘공(公)’ 관념은 중국이나 조선과 다르게 옳음에 대한 윤리적 가치평가가 없었고, ‘공’이 ‘사’의 우위에 있으면서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집단에, 하위집단은 상위집단에 중층적으로 종속된 구조에서 별다른 윤리와 가치 지향 없이 오로지 개인과 공동체가 국가에 대해 자기를 희생해 봉사해야 한다는 표어였다. 실제로 집단을 위해 개인이 기부한 사례나 봉사·희생한 인물을 강조하는 기사들에서 멸사봉공이 등장한다(문경득 2023, 301-303, 307-310). 심지어 멸사봉공이라는 명목으로 집단을 위해 강제로 부녀자를 동원한 일을 미화하는 기사도 있다.¹³

중일전쟁 발발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면 멸사봉공 표어가 전쟁을 미화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라고 선동하는 일제의 파시즘적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등장하고 있다. 즉, “‘정의로운 일본’은 평화롭고 ‘명량’한 동아시아의 신천지를 건설하고 ‘조국(肇國)의 대이상’인 ‘동양 영원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거나¹⁴ “신체제, 고도국방국가체제, 신동아, 세계인류의 복지, 혼연일화(渾然一和)의 낙토(樂土)” 등의 표현이 의미장 안에 등장하고 있

12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 분석은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개념사란 언어와 실제 사이의 관계가 모호하다고 보고, 개념을 정의의 대상이 아닌 해석의 대상으로 삼는 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행위자가 경험한 ‘현재’를 표현하고 있는 사료의 언어(과거의 현재)와 우리가 경험한 ‘과거’를 표현하고 있는 현재의 언어(현재의 과거) 사이의 차이점을 밝혀, 과거 행위자가 구성한 역사적 실재와 현재 역사가가 만든 역사적 실재를 의미 있게 소통시키려는 연구방법론이다(나인호 2011, 27-34).

이러한 개념사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롤프 라이하르트(Rolf Reichardt)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라이하르트의 개념사 방법론에 관해서는 나인호(2011, 82-92), 김학이(2009, 128-175)에 상세하다. 단, 이 방법론은 방대한 자료의 축적과 분석을 수행하고 이후 언어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출된 개념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방식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의미장 분석의 방법론만 채택하였다.

롤프 라이하르트의 의미장 분석방법론은 어떤 개념이 특정 텍스트 속에 갖는 ‘의미장’을 구조화하여 해당 개념과 관련된 단어의 사용 범례를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이다.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단어들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배치되는 ‘계열관계’, 개념들을 내용적으로 채우고 설명하고 특징짓는 단어들로 구성된 ‘통합관계’, 모든 체계적 반대개념은 ‘기능적 반의어’에, 역사적 사건, 인물, 원인 등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은 ‘역사적 사실’에 배치된다. 이렇게 배치된 의미장을 통해 개념의 공시적 차이와 통시적 변화를 가시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

13 “婦人屋外勞働.” 『동아일보』 1938/07/02.

14 “北支事變에直面하여 輕舉妄動을 愼戒하라.” 『조선일보』 1937/07/31.

다.¹⁵

이를 위한 멸사봉공의 구체적 의미로 ‘국가를 위하여 온갖 희생을 한다’이거나 ‘자기를 버리고 천황께 귀일하여 전아(全我)를 들어 국가에 바치자’는 뜻이라고 정의한 기사도 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 중 기능적 반의어에는 없어야 할 ‘사’에 해당하는 개념들로 ‘사사(私事), 자기, 자아, 자기의 이익과 생활, 사익’과 같은 표현 이외에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민주주의’ 등이 보인다.¹⁶ 1945년 시점의 기사에서는 ‘彼, 汝, 我’도 없고 사농공상과 같은 직분의 구별도 없고, 계급과 빈부의 차이도 없다고 하면서, 소아적인 집념과 일체의 사, 즉 재물, 지위, 영욕,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생사나 부득이한 사정, 한 몸의 보전 등 ‘사’에 관한 애착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즉,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면서 전쟁을 위해 국가에 순종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과 봉사야말로 국민의 마땅한 의무라고 선전하고 있다(문경득 2023, 310-317).

게다가 멸사봉공 표어는 침략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산활동과 재생산 영역까지 규율하고 통제하는 의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즉, ‘고도국방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정신적 각오와 경제적 실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기능적 반의어에는 이러한 경제통제를 어기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배치하고 있다. 특히 생산활동과 관련해 노무제함에 관한 기사를 보면 노동자 부족으로 인한 임금 상승을 억제하여 군수노무에 과도한 인건비가 투입되는 걸 막고자 임금을 통제하고, 과도한 잔업으로 인한 노동력 소모를 예방하여 장기전에 대응하고 군수 확보와 생산력 확충하기 위해 노동 시간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즉, ‘노사협조(勞資協調)와 멸사봉공으로 충후산업군으로서의 열매를 맺자’고 주장하고 있다.¹⁸

15 “總動員의 強化圖謀 長期建設에 邁進 國民精神總動員,” 『동아일보』 1938/12/07.

16 “滅私奉公-總力聯盟實踐要目重點,” 『매일신보』 1941/04/05.

17 “社說 - 滅私之秋,” 『매일신보』 1945/06/12.

18 “勞務三制度에對하여 雇人制限,賃金統制, 就業時間等,” 『조선일보』 1939/08/01.

재생산 영역과 관련해 국민총력개풍군연맹이 결성하면서 실천사항까지 제시한 기사를 살펴보면, 저축과 국채 구입 등 경제통제에 협조할 것을 거론하면서 출근 시간은 물론 의복과 음식까지도 규율하고자 하고 있다.¹⁹ 심지어 ‘흰 옷’을 입지 말고 멸사봉공하자는 기사도 보인다(송금선 1940). 즉, 멸사봉공과 직역봉공(職域奉公)을 강조하여 생산활동은 물론 재생산 영역에 속하는 가정경제와 일상까지 규율하려고 하고 있다(문경득 2023, 325-333).

이처럼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에 등장하는 의미들은 파시즘의 지도자가 집권 후에 발언한 해결책들과 비교된다. 파시즘 정권은 일반적인 정권과 다르게 권력을 장악한 뒤에도 자리에 안주할 수 없었다. 이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극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첫째, 공동체를 통합하고 정화하고 활기차게 만든다. 둘째, 부르주아 물질주의의 무기력함, 민주주의 정치의 혼란과 부패, 외국인과 외국 문화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공동체를 구한다, 셋째, 좌파가 주장한 소유의 혁명을 회피하고 가치의 혁명으로 대체한다. 넷째, 타락과 쇠퇴로부터 사회를 구한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외국인, 좌파 등으로 인한 ‘공동체’의 타락과 쇠퇴가 위기로 제시되고 있다. 지도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해결책으로 “내부와 외부의 적들에 대항한 폭력 행사, 개인의 완전한 공동체 귀속, 혈통과 문화의 정비, 군비 재무장 및 팽창주의 전쟁”을 제시하면서 지도자는 국민에게 ‘역사와의 특권적인 관계’를 약속했다(팩스톤 2005, 337).

즉, 파시스트 지도자의 해결책은 폭력과 전쟁이었고, 이를 위해 ‘개인의 완전한 공동체 귀속’을 추구했다. 이는 멸사봉공이란 글자 그대로의 의미인 ‘개인을 소멸시켜 공동체에 귀속시킨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 파시스트들에게 “공적인 일반 의지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공간도 있을 수 없었다. 파시스트들은 인간의 삶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누는 낡은 ‘부르주아적’ 방법을 증오했다. 그 대신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완전하고 충만한 집단적 경험으로 대체”하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무솔리니는 “정치적으로는 파시스트이면서 …….

19 “滅私奉公을 盟誓 總力開豊郡聯盟의 實踐事項.” 『매일신보』 1940/12/05.

학교, 가정, 직장에서 비파시스트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파시스트의 전체주의로 “시민사회의 사적 영역을 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흡수함으로써 미완으로 남은 주권적 민족국가의 건설을 완결짓고자 하는 야심찬 기획”이었다(장문석 2010, 86-87).

팩스턴도 “파시즘 정권들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경계를 너무나 급진적으로 바꾸어버린 나머지 사적 영역은 거의 사라져버렸다.”고 하면서 나치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베르트 라이가 “나치 국가에서 유일한 사적 개인은 잠든 사람뿐”이라 발언한 내용을 인용했다. 즉 “이 의무적 국민 단합이라는 목표에는 자유로이 사고하는 개인이나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하위 공동체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팩스턴 2005, 326). 나아가 마벨 베레진(Mabel Berezin)같은 학자들의 경우 “사적 영역을 모조리 공적 영역으로 끌어드리려는 노력이야말로 파시즘의 핵심”이라 보기도 한다고 소개하면서, “권위주의 정권들은 비록 시민의 자유를 짓밟고 살인도 불사하는 잔인함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파시즘처럼 사적 영역을 완전히 없애버리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팩스턴 2005, 326, 484).

실제로 나치 시대의 일상을 분석한 포이케르트는 “자유주의는 사적·사회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의 병존을 전제로 하는 반면, 나치즘은 기존의 사적인 영역에 정치적인 요구를 부과함으로써 사회를 정치화”시켰다고 보았다(포이케르트 2003, 121). 이로 인해 결국에는 “사생활이라고 하는 최후의 공간에서조차 자기 규율과 주변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아침 섞인 충성과 솔직한 거부감 사이에서의 계산적인 저울질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진정으로 자율적인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치즘 체제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 극단적으로 축소시켰음을 보여주었다(포이케르트 2003, 372). 이러한 나치식 ‘멸사봉공’을 표상하는 이미지는 “대중(그리고 자신의 내적인 카오스)이 최고의 권력에 의해 순치되었음을 표상하는 ‘텅빈 광장’, 지도자를 위해 마지막 남은 힘까지 마조히스트적으로 짜낸 데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탈진한 “암전상태”라는 환상으로 상상되었다(포이케르트 2003, 43-44).

이처럼 일제의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과 파시스트와 나치의 당시 발언에서 보이는 목표와 방법은 매우 흡사하다. 즉, 신화화되고 미화된 공동체를 위해 사적 개인을 희생시키고 사적 영역을 국가가 통제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급진적 전쟁 수행이라는 의도까지 일치한다.

직접적으로 전체주의 법이론을 다룬 신문 기사에서도 멸사봉공 표어가 등장하고 있다. 전체주의(totalitarianism)는 원래 1923년 이탈리아의 의회 지도자인 조반니 아멘돌라(Giovanni Amendola)가 공직을 독식하려는 파시스트들의 선거법 개악을 비난하면서 ‘전체주의적(totalitaria)’이라는 형용사를 처음 고안해 사용했다. 그러나 무솔리니와 파시스트들은 이 비난을 오히려 칭찬으로 받아들여 이른 전체주의(totalitarismo)를 ‘새로운 정치’와 같은 뜻으로 여기며 자랑스럽게 사용했고, 이후 전체주의적이나 전체주의라는 표현이 유행했다(팩스턴 2005, 472; 장문석 2010, 87-88).²⁰

유진오(兪鎭午)는 1939년에 전체주의 법이론에 관한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²¹ 이 글에서 유진오는 전체주의국가로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라고 전제하면서, 서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공통되는 특질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체주의 법이론을 거론하고 있다. 그는 전체주의 법이론이 ‘종래의 개인 본위 법률관에서 단체 본위의 법률관으로 비약했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하면서, 전체주의에서는 ‘단체를 본위로 하므로 개인에게는 자유 대신 통제가, 권리 대신 의무’가 부여하므로 독일의 ‘수권법’이 적절한 실례라고 했다(유진오 1939).

일견 전체주의적 법률에 대한 객관적 서술처럼 보이지만, 세 측면에서 전체

20 현대에 여러 연구자가 언급한 전체주의 개념은 대체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일 나치즘과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체주의 개념은 1930년대와 40년대에 파시스트들이 사용한 전체주의와 맥락이 다르다. 파시즘을 전체주의로 해석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팩스턴(2005, 473-477)과 장문석(2010, 88-91) 참조할 것. 본 논문에서는 당대의 맥락에서 사용된 ‘전체주의’에 관한 기사를 사례로써 인용하였다.

21 유진오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일제강점기에는 소설가, 법률가로 활동하였다. 1939년부터 친일 활동에 가담해 식민정책을 옹호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며 지원병을 독려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해방 이후에는 헌법기초위원, 법제처장, 고려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는 국토통일고문회의 고문과 국정자문위원에 위촉되기도 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3.10.31.).

주의와 멸사봉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유진오는 ‘단체분위라 함은 현대 사회에 완전한 의미의 멸사봉공이 실행되고 있지 않는 한 중대한 제한’이 있다고 했다. 이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멸사봉공이 완벽하게 실행되면 단체 분위의 전체주의적 법률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멸사봉공을 통한 전체주의의 실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단체분위의 법률관은 모든 사람의 ‘법률적 평등’이라는 개념에 수정을 가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지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지도자는 일반 민중보다 탁월한 인격으로 국민의 향할 바를 지도하는 인간으로, 영웅이자 초인이고 예언자이므로 지도자와 일반 민중과의 사이에 평등이란 성립하지 않는’ 존재이다(유진오 1939). 이러한 지도자는 이탈리아 무솔리니나 독일의 히틀러를 가리키며 일제의 경우 천황을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멸사봉공 표어와 전체주의 개념과 관련해 배치된 의미장에서도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통제에도 참고 따라야 하며, 권리의 침해도 감수해야 한다’면서 의무와 통제를 권리와 자유와 대비시키고 있다(〈표 1〉).

〈표 1〉 전체주의와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全體主義 法理論, 全體主義, 全體主義國家, 總親和, 全體主義 法律觀, 團體本位の 法律觀	義務와 統制, 實踐의 必要, 犧牲의 精神, 統制, 完全한 意味의 滅私奉公, 強力한 統制와 義務, 統制에도 忍從, 權利의 侵害도 甘受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俞鎮午, 日, 獨, 伊, 授權法	權利와 自由, 民主主義, 理論의 思辨, 個人主義의 自由主義의 法理論, 個人本位の 法律觀, 自由와 權利의 擁護, 權利概念, 三權分立, 法治主義, 私의 自治, 私的所有

이처럼 멸사봉공 표어를 통해 표상되는 제국주의 일본의 이념은 파시즘과 매우 흡사하다. 비록 파시즘이나 나치즘에 비해 대중정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경로로 형성된 정치적 공간에서 일본의 과격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제국주의 일본은 파시즘이었거나

수렴진화한 파시즘의 ‘기능적 등가물’이었으며, 멸사봉공은 제국주의 일본의 과격화한 파시즘적 성격을 단적으로 표상하는 표어라고 할 수 있다.

III. 멸사봉공 표어의 탈유교적 근대성

1. 선공후사와 멸사봉공 사이

멸사봉공은 『논어(論語)』에 나오는 견위수명(見危授命), 『사기(史記)』에서 유래한 선공후사(先公後私)나 진충보국(盡忠報國), 대의멸친(大義滅親), 살신성인(殺身成仁), 사생취의(捨生取義) 등 다른 사자성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즉, 인의(仁義)와 같은 유교윤리 혹은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 이기적 욕망을 다스리거나 자신 혹은 자기 가족을 희생하라는 뜻이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멸사봉공과 같은 관념은 유교와 같이 얽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구폐로 여기거나, 근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부활해야 할 가르침으로 여기기도 한다. 즉, 멸사봉공이 유교로부터 나왔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유교에 대한 인식이 멸사봉공 표어에도 투사된다.

실제로 멸사봉공과 관련해서 몇몇 조선인 엘리트들은 유교적 표현을 사용해 멸사봉공을 정당화하고 있다. 김태흡(金泰洽)은 국가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멸사봉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²² 전국시대 조(趙)나라 인상여(蔭相如)가 활약한 화씨벽(和氏璧) 고사와 염과(廉頗)와의 문경지교(刎頸之交)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특히 인상여가 ‘나는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국가를 위하여 사사로운 원한에서

22 김태흡은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불교계 인물이다. 1935년부터 『불교시보』를 창간하며 본격적으로 친일활동을 시작했다. 1937년부터는 일제의 지원병제 실시를 찬양하였고, 내선일체 강화와 황민화운동을 위한 일제의 정책에 협력하였다. 특히 스스로 창씨개명을 한 뒤 창씨개명 홍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 개발에 적극 나서서 조선 제일의 친일 포교사라는 평을 들었다. 해방 이후에는 친일행적에 대한 사과 없이 팔만대장경의 한글 번역에 종사하는 등 저서 활동을 했으며 101세까지 장수했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검색일 2023.10.31.).

싫어하고 꺼리지 않고 내가 피할 뿐이다'라고 했고 염파가 이 말을 전해 듣고 화해했다고 하면서, '모두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할 뿐이니 선하고 선하지 않음이 어찌 있겠는가 ... 염파와 인상여 두 사람은 멸사봉공의 표본이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다(김태흡 1938).

우선 이 글에서 먼저 지적할 부분으로 인상여의 원래 발언은 멸사봉공이 아니다. 선공후사의 유래가 되는 “나라의 급한 일이 먼저이고 사사로운 원한은 나중이기 때문이다.”였다.²³ 즉, 여기서 인상여의 발언은 일의 경중과 선후를 따져 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관한 내용임에도 김태흡은 이 선공후사를 멸사봉공으로 비틀었다. 게다가 글의 말미에 등장하는 ‘선하고 선하지 않음이 어찌 있겠냐고 덧붙였는데, 이 말에는 가치판단을 중시하고 국가가 선하지 않더라도 개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뜻도 담겼다고 생각한다. 즉, 김태흡은 친숙한 옛 고사를 인용하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판단을 부정하는 의도를 담아 핵심적 키워드를 멸사봉공으로 비틀었다.

현상윤(玄相允)도 유교적 표현을 빌려와 학생들에게 특별지원병에 지원하여 멸사봉공하라는 내용의 논설을 썼다.²⁴ 이 기사 역시 다른 전쟁 선동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전쟁과 내선일체를 미화하면서 ‘우리의 목숨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므로 국가를 위해 전쟁에 나서서 목숨 바치는 일이 멸사봉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멸사봉공을 방해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심’과 ‘문약(文弱)과 투안(偷安)에 빠진 조선가정’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현상윤 1943).

다만 이 글은 다른 전쟁 선동 기사와 다르게 학생들을 선비[士]에 빗대어 ‘선비는 나라의 원기’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평상시에 선비들을 키웠으니, 선비는 마땅

23 『사기』 염파·인상여 열전: “以先國家之急而後私讎也”

24 현상윤은 일본 와세다 대학 출신으로 3·1운동 당시 관련자 48인 중 한 명으로 체포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중일전쟁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친일단체에 간부로 참여했으며 언론매체에 전쟁 협력을 강조하는 글을 기고했다. 해방 이후 1945년 경성대학 예과과장, 1946년 보성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했다. 한국전쟁 중에 납북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3.10.31.).

히 ‘국난을 당하여 솔선해 나서자’라고 하면서 ‘위기를 보면 목숨을 바친대(見危授命)’와 같은 유교 표현을 일부 빌려왔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삶에 대한 애착’과 ‘문약과 투안’처럼 좀 더 조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상윤 또한 아직은 유교의 영향이 남아있는 조선인 학생들에게 보다 설득력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멸사봉공이란 표어를 재구성했다고 보인다(〈표 2〉).

〈표 2〉 현상윤이 쓴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久遠의 生, 士가 一命을 國家에 바쳐 救國濟民하는 盡忠報國의 精神, 大東亞聖域, 國家의 元氣인 士된 者의 한사람으로서 無上의 光榮, 聖戰, 永遠한 歷史的 大義를 위하여 이를 바칠 때는 大義와 함께 永生하는 것, 半島의 皇民化, 皇國國民의 光榮	滅私, 士는 國之元氣, 決戰精神, 青年다운 大勇斷, 國難을 當하여 率先挺身, 士된 者의 一大義務, 諸君이 바치는 赤誠, 忠魂, 皇恩에 奉報하는 國民의 絶對한 義務, 勇猛果敢한 鬪志, 皇國의 偉大한 一分子, 國家의 士된 自身의 名譽와 責任, 목숨을 鴻毛와 가치 역이는 가지가지 決死의 行動, 우리들 목숨은 個人의 목숨이기 전에 國家의 것, 목숨을 버리는 者는 영원이 목숨을 어들것, 青年다운 決斷性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玄相允, 學徒, 卒業者, 臨時特別志願兵 採用, 大東亞戰爭, 內地人學徒, 半島靑年學徒	國難, 夷狄의 侵寇, 家庭事情, 無爲徒食, 여러가지 事情, 弧疑 逡巡, 躊躇, 自身의 生에 대한 愛着心, 文弱과 儉安에 빠진 朝鮮家庭, 彷徨, 生에 對한 愛着, 個人의 목숨, 목숨을 앗기는 者는 그 목숨을 잃을 것, 우리들 목숨을 一個人을 위하여 固執, 그 個人의 肉體의 一生, 家庭事情, 隱遁姑息, 個人의 安危, 弊風, 武를 等閑히 하여온 기정, 家庭의 陋習, 自身의 無力, 卑屈한 靑年

그러나 전통 시대 유교의 가르침은 무조건적인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공’ 또한 국가나 공동체 등의 뜻 이외에도 ‘옳음’에 관한 윤리적 가치평가가 담겨있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승환 2002, 50-53).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君子)답다. 거백옥(藺伯玉)이여! 나라에 도(道)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거두어 속에 감추어 두는구나!”라고 하여 나라에 도가 있을 때만 출사하여 일해야만 군자라고 했다.

또한 유교에서는 백성은 임금에게 무조건 충성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고, 위정자도 백성을 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다. 『논어』 안연편에서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식량과 무기(병력), 백성의 믿음을 이야기했다. 이어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버려야 하는지 묻자, 공자는 무기와 식량은 버려

도 백성의 믿음은 버릴 수 없다고 했다(『논어』 안연 7장). 즉, 백성을 쥐어짜 무기를 모으고 식량을 모으기보다 부득이하게 무기와 식량을 버려야 하더라도 백성의 믿음만큼은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했다. 좀 더 가까운 조선의 사례를 보더라도 효종이 청나라에 대한 복벌을 위해 군비 확충을 주장했을 때 송시열은 ‘복벌론’의 명분에 동조하면서도 임금의 수양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즉, 현실적으로 병력을 기르고 군량을 모아 전쟁을 벌이는 일보다는 내치가 우선이고 내치를 위해서는 군주가 수양해야 한다는, 수기치인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논리였다(박균섭 2013).

반면 일본의 ‘공’은 개인은 집단에, 하위집단은 상위집단에 중층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개인(私)이 속한 마을 등의 공동체부터 ‘공’이지만, 동시에 상위의 ‘공’인 번(藩)에게는 마을 공동체는 ‘샤’가 되었고, 번 또한 상위의 ‘공’인 막부나 천황에게는 다시 ‘샤’로 취급되는 식이었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는 개인의 윤리적 가치평가도 사적 이익의 추구도 허용되지 않았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최상위에 천황과 국민국가가 ‘공’이 되어 개인의 희생과 봉사가 신민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즉, 국가적 ‘공’을 확대하고 강화하면서 개인이 국가에 매몰되는 관계로 구성되었다(김정현 2008, 52-53; 김정옥 2010, 334-340; 미조구치 유조 2013, 2013).

그러므로 이런 관념 구조에서 1937년에 만들어진 멸사봉공 표어는 조선의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에토스(ēthos)마저 ‘샤’로 규정하고 ‘공’인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는 일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제는 개인의 질병이나 가족의 죽음보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사례를 멸사봉공의 ‘미담’이라 보도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병세가 위독한 아이를 보고 방공훈련에 나가길 주저하자 아내가 ‘집안일은 걱정마시오’라고 하면서 남편을 내보냈고 아이가 죽은 소식도 훈련이 끝난 다음에서야 알렸다는 기사가 대표적이다.²⁵ 즉, 일제가 전쟁선전을 위해 내세운 ‘동아신질서’나 ‘성전’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문경득

25 “模範할愛國女性,” 『조선일보』 1940/03/19

2023, 320-325).

이처럼 일본이 처음 의도한 멸사봉공 표어는 주로 국민 혹은 신민의 의무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본화된 유교의 논리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서 개인은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도 구한말부터는 국민을 군주와 국가에 대해 복종하고 충성하며 의무를 다하는 ‘신민으로서의 국민’으로 규정해 왔다. 이는 논리적으로 일제가 요구한 ‘황국신민으로서의 국민’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김소령 2008, 292-293).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옳고 그름의 윤리적 가치판단을 중시했으므로 무조건적인 충성의 강요에 순순히 수긍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친일적이었던 조선인 지식인들은 식민지 조선인들이 멸사봉공을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종래의 유교적 관념과 표현을 인용해 멸사봉공이 마땅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설득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처럼 전통적 유교의 논리구조에서 섬겨야 할 ‘공’은 임금이나 국가뿐만 아니라 옳음에 대한 가치판단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국가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찬성하는 일은 유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반대로 외적의 침입과 같은 위기에는 적극 대응하는 게 옳은 일이었기에 그때는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섰다. 그게 ‘전위수명’이고 ‘선공후사’였다. 반면 윤리적 가치판단이 없는 멸사봉공에서 개인이 자기를 희생해 봉사해야 할 대상은 근대의 광기로 과격화하여 침략전쟁을 벌인 과시증적인 제국주의 일본이었다. 멸사봉공의 의미장 안에 있는 유교적인 표현들은 그런 의도를 억지로나마 받아들이게 만든 ‘사탕발림’에 불과했다. 즉, 선공후사와 멸사봉공 사이에서 우리는 전통과 근대 사이만큼의 단절을 확인할 수 있다.

26 물론 일제하 국민 개념은 애국계몽기의 국민 개념과 사상적으로는 연속적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다른 범주였다(박명규 2009, 103).

2. 멸사봉공 표어의 내면화

이처럼 제국주의 일본은 친일적인 조선 지식인들까지 동원해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동원을 선동하기 위해 멸사봉공 표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표어를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연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일단 파시즘적인 일제 지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항했는지를 연구한 성과들을 보면(변은진 2013; 정병욱 2013), 일본제국의 지배는 물론 멸사봉공에서 지향하는 침략전쟁과 극단적 희생에 조선인들이 동의하지 못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반면 식민지 당국에서 열악한 언론과 높은 문맹률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시각적 프로파간다를 통해 파시즘 체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점과(한민주 2013), 근대 이후 아시아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에 계속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단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멸사봉공에 어느 정도 동의했을 수 있다.

하지만 저항과 동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자니 파시즘 체제는 사적 영역을 억압하는 환경이었으므로 솔직한 발언과 기록을 남기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멸사봉공 표어의 수용과 내면화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방 이후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일은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1945년 이후에 일제강점기에 관해 증언을 채록하여 별도로 구술사 등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접근하거나, 1945년 이후에 멸사봉공이 사용되는 맥락을 살펴보는 방법 등이 있다. 다만 이 두 가지 방식은 본 논문의 방법론이나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 결국 1937년부터 1945년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발언과 행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로 당시 신문에 발언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친일적이면서 상당히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던 조선인 엘리트의 발화가 담긴 기사가 분석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앞서 ‘멸사봉공을 위해 흰옷을 입지 말자’라는 글을 쓴 송금선(宋今璇)은 일제시대에는 여성운동가와 교육자로 활동하면서 일제에 협력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덕성고등여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며 계속 교육계와 여성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²⁷ 전체주의 법률관에 관한 글을 기고한 유진오 또한 일제강점기에 법률가이자 소설가로 활동하며 일제에 협력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헌법기초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의 고위층으로 활동했다. 선공후사를 멸사봉공으로 비틀어 인용한 김태흡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제일의 친일 포교사라는 평을 들은 인물이고, 현상윤은 교육자로 1937년 이후 조선인의 전쟁 협력을 당부하는 선전 활동에 가담했으며, 해방 이후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에 취임했다가 한국전쟁기에 납북되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에 족적을 남긴 조선인 엘리트들도 일제 파시즘기 동안 멸사봉공을 외치며 전쟁을 미화하고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리교의 심명섭(沈明燮) 목사는 기독교가 서아시아에서 났으나 서양으로 가지 않고 동양으로 먼저 왔으면 물질 본위의 자유나 이기주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종교개혁과 기독교의 혁신을 주장했다(심명섭 1941/09/12). 구체적으로는 5개조 혁신조항을 실천하고자 구미식 제도와 규정을 청산하고 일본식 통제, 중앙집권 전체주의로 신규칙을 정해 신체제로 정비해 ‘전도보국(傳道報國)’해야 한다고 했다(심명섭 1941/09/13). 또한 각 교회마다 총력연맹과 애국반을 조직하여 ‘신동아건설’과 ‘진정하고 영원한 세계평화’를 위해 대동단결하여 ‘일사보국(一死報國)’해야 한다고 하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실행할 기회라고 마무리 짓고 있다(심명섭 1941/09/14) (<표 3>).

즉, 동양의 정신문명과 일본식 통제 및 중앙집권 전체주의를 서양의 물질문명과 물질 본위의 자유, 이기주의와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없애야 할 ‘사’와 받아들여야 할 ‘공’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멸사봉공 표어 기사처럼 전쟁 미화의 표현이 있고 전쟁 참여와 통제 순응 등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일제

27 송금선은 일본에 유학을 다녀와 교육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후쿠자와 레이코(福澤玲子)로 창씨개명했다. 1934년부터 교수이자 여성계 지도자로 부인을 대상으로 일제 식민정책을 홍보했다. 1937년부터는 전쟁 협력을 강조하는 활동을 했다. 정작 장남 박원국이 특공대에 뽑혀가지 않도록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막내동생 송성순을 다락방에 숨겼다. 해방 이후에도 계속 교육활동과 여성단체 활동을 이어갔고 1972년 유신정권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1974년 훌륭한 어머니상과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상을 받기도 했다. 1987년 노환으로 사망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3.10.31.).

에 의한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한 다른 개신교도와 다르게 성경 구절의 의미까지 왜곡하면서까지 멸사봉공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일제의 멸사봉공 논리를 내면화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신자들에게 전하러 한 의도가 읽힌다.

〈표 3〉 심명섭 목사가 쓴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敬神愛隣의 精神, 精神文明, 東洋, 完成된 基督教, 清新高潔한 精神運動의 本源, 靈的生活의 留意, 物心兩面의 調和, 全體主義, 一億一心 新東亞建設, 內鮮一體, 八紘一宇, 忠君愛國精神, 新體制, 聖業完成, 活潑한 精神을 振興, 超人間的 活動과 信念 神의 愛護와 正義의 最後勝利, 新東亞建設, 永遠한 世界平和, 聖戰, 大同團結	大同團結로 滅私의 奉公, 宗教改革, 基督教의 革新一家主義, 犧牲主義, 皇道宣揚, 防共, 國防, 愛國運動, 兵役義務, 日本式 統制, 中央集權 全體主義, 團結, 傳道報國, 聖業完成에 滅私奉公 時局에 順應, 忠良한 皇國臣民으로 奉仕, 獻金運動, 自立하는 精神力, 銃後愛國運動에 盡力, 大同團結, 一死報國, 實踐으로 義勇을 다하여, 獻身獻心獻物, 목숨을 버리는 자는 永生을 얻는다
역사적 사실	가능적 반의어
沈明燮, 基督教朝鮮監理會, 國民總力監理教會聯盟, 日本監理教團	物質文明, 西洋, 物質本位의 自由, 利己主義, 物質本位의 動物性, 個體 民主, 利己, 個人, 自由, 共產主義, 異教思想과 習慣, 歐米式 制度和 規定, 外國依存主義思想, 迷路, 祈禱, 讚頌, 說教, 懦弱哀怨적 語句 依賴, 理論, 打算, 少異

유길준의 조카이자 여성기독교인으로 활동했던 유각경(兪珏卿)은 미국에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적국 여성’인 미국 여성에 대해 개인 본위라서, 어버이에 대한 효심과 양보주의가 부족하고 멸사봉공을 모른다고 비판하고 있다(유각경 1941). 유각경 역시 해방 후에도 계속 여성계에서 활동했다.²⁸

1941년의 “南總裁 烈火 같은 訓示로 滅私奉公의 決意表明”이라는 기사에서는 김영무(金英武)와 김활란(金活蘭), 한상룡(韓相龍)이 나란히 등장한다. 김영무는 순창 출신의 일제 강점기의 관리로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며,²⁹ 김활란은 교육자이자 여성 활동가로 1930~40년대에 많은 글을 기고하며

28 유각경은 중국 유학과로 교사로 활동했다. 1922년부터 김활란 등과 함께 YWCA에서 주로 활동했다. 1937년부터 친일 활동을 시작해 강연과 좌담회에서 일제 전시체제를 옹호하고 전쟁 참여와 여성들의 동원을 독려했다. 해방 이후 한인애국부인회를 창설해 위원장을 맡았고 1949년 대한부인회가 창설되자 부회장을 맡았다. 대한부인회 대표 자격으로 1956년과 1959년에 자유당 중앙위원이 되기도 했다. 1966년에 사망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3.10.31.).

친일 단체에서 활동했다. 해방 이후에는 이화여대 총장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³⁰ 한상룡은 구한말부터 활동한 교육자이자 경제인으로 일찍부터 친일 활동을 시작했다.³¹

이들이 함께 이름을 올린 기사에서 전라북도의 김영무는 ‘평소의 봉공이 아직 부족하며 한층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 뭉치가 되어 책무를 다하고 실천을 통해 정신봉공하겠다’고 했다(김영무 1941). 반도 여성을 대표하여 김활란은 ‘국민의 생활 전부를 국가에 바치라는 것’이라는 말에 감격하였다면서 ‘시국을 돌파하기 위해 여성들의 책임이 크다’고 느낀다고 했다(김활란 1941). 한상룡은 ‘총력운동에서 전면적으로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사명의 완수를 위해 철석같이 단결하여 일치협력해야 한다’고 썼다(한상룡 1941). 이 중 한상룡은 1942년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이자 조선인을 대표하는 유력자로서 징병제가 시행되었으니 진정한 황국신민이 되기 위해 군대에 지원해 목숨 바쳐 멸사봉공해야 한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한상룡 1942).

이처럼 멸사봉공을 발언하며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 즉 일제에 협력한 조선

29 김영무는 순창 출신의 일제강점기의 관리로 金田英武로 창씨개명했다. 일본에서 법률을 공부했고 1916년부터 조선총독부 재판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1920년과 1924년에는 전라북도 도평의회원에 선출되었고 1933년과 1937년에 전라북도 도의회원에 임명되었다. 1941년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와 홍아보국단 전라북도 준비위원을 역임했다. 1953년 사망했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검색일 2023.10.31.).

30 김활란은 일제강점기 개신교인이자 교육자로 아마기 카쓰란(天城活蘭)으로 창씨개명했다. 이화학당을 졸업하면서 최초의 여성 대학생 졸업자가 되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비밀결사에 가입했고 선교사의 추천으로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다. 귀국 후 1922년 유각경 등과 함께 YWCA를 창설하고 1927년에 신간회 여성 대표 간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이화여자전문학교와 이화보육학교 학생을 동원해 이화애국자녀단을 결성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이화여자전문대학교를 복구하여 총장을 맡았고 YWCA를 재건하여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 외에 1959년부터 1970년까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지냈고, 1963년 교육 부문의 대한민국장을 수상했다. 1970년 사망했다. 사망후 대한민국일등수훈장에 추서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3.10.31.).

31 한상룡은 1896년 관립 영어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했다가 돌아와 영어교사로 활동했고 1902년에는 외부(外部) 참서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에는 한성은행 전무취체역으로 선임되었다. 1927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임명되어 1941년까지 네 차례 연임했다. 1934년부터 전쟁을 미화하고 군대지원을 독려하는 기고와 강연 활동을 했다. 1938년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를, 1943년에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총장, 1945년에 전사동원단체 조선국민의용대 고문을 지냈다. 해방 이후 1947년에 사망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3.10.31.).

지식인들은 이미 당대부터 이름을 널리 알린 지식인이었다. 이들이 멸사봉공을 외친 행위에 대해 한편에서는 일제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협력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이클 스콧은 피지배 집단들이 자신들의 복종을 합리화하는 사회적 구성을 받아들이거나 정당화하게 되는 제한적이며 엄격한 조건 중 하나로 “피지배자들의 상당한 숫자가 궁극적으로는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개연성이 높을 때”라고 했다. 즉, “현재 감내하고 있는 지배를 언젠가 자기 자신도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지배의 정당화 패턴에 순응하게 되는 강력한 유인”이었다(스콧 2020, 151-152).

실제로 1937년 이후 일본인이 전장에 동원된 빈틈을 보전하는 형태로 조선인의 대규모 사회 진출과 사회적 지위의 상승 이동이 현저해졌다. 즉, 역설적이지만 침략전쟁을 위한 총력전체제가 조선인을 민족 차별로부터 ‘해방’하고, 사회적 발언권이 확대되는 것을 조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침략전쟁에 대한 협력은 어느 사이에 ‘(피)강요’로부터 ‘자발’로 성격이 변용되었다(나미키 마사히토 2010, 147-148). 이러한 역할 변화 속에서 그들은 ‘멸사 당하는’ 쪽이 아닌 봉공을 받는 입장이었거나 그렇게 될 것이었으므로, 제국주의 일본이 내세운 멸사봉공 표어를 받아들여 내면화할 개연성이 충분했다.

실제로 채만식은 신체제의 전체주의는 국가가 주도하므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파시즘적 논리에 매료되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체주의를 받아들였다. 즉, 그는 ‘서구의 자유주의가 개인의 이익을 앞세웠다면 동북아시아의 전체주의는 국민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는 공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채만식은 나름 세계사적 관점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빚어낸 모순에 대한 부정하는 ‘신체제’와 그 주요 논리인 ‘멸사봉공’은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채만식은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해 반성하며 “민족의 죄인”(1948)을 썼다. 그러나 친일 파시즘으로 경도되었던 내적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반성 없이 그저 ‘원고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소산’이라고만 변명했다(김재용 2003, 401-404, 410-411).³²

이처럼 조선인 엘리트가 멸사봉공의 이념을 내면화했다면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방 이후에도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가정할 수 있다. 물론 과격화했던 제국주의 일본은 패전으로 몰락하였으므로 해방 이후의 멸사봉공 표어에서는 과시즘적인 침략전쟁 미화와 전쟁 동원 선동의 성격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감벤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급속하게 전체주의로 이행하고 다시 전체주의가 붕괴된 뒤에 민주주의 국가가 복구되는 과정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이러한 급속한 이행과 전이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양자를 관통하는 근대국가 공통의 논리가 존재함을 암시했다(장문석 2010, 134-135).

또한 제도의 측면에서도 일본 통치하의 관료제, 징병제, 호적, 경찰, 치안, 국민교화의 제도가 해방 후 한반도의 국가 건설에서 부활한 것은 이미 검증되고 공인된 사실이다. 즉, 중일전쟁 이후 한반도에 구축된 '과시즘적 공공성'은 국가적 차원의 '동원·방위·익찬'의 동시적 효과를 노리는 사회 시스템이었는데, 한반도의 탈식민화 과정에서 사라지고 극복된 것이 아니었다(조관자 2010, 162-163). 해방 후 이러한 지식과 문화의 총동원 체제는 일장기와 일본어를 떼어내고 '민족적 형식'으로 정비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반일 및 반공 민족주의를 강화했지만 진중보국을 교육하는 학교의 역할은 그대로 이어져 민족교육의 산실로 갱생되었다(조관자 2010, 170). 실제로 일제로 '민족적 단결'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논리 등이 잔존하는 등 교육형식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에서도 일제 과시즘 교육의 논리가 재현되고 있었다(김경미 2006). 즉, 제도의 역사에서 식민지 지배의 잔재는 단순한 악이 아니고, 민족 자주성의 고양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다(조관자 2010, 162-163).

“국민교육헌장”의 초안자이자 박정희를 이념적으로 보좌한 철학자 박종홍(朴鍾鴻)을 통해서도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종홍은 다카하시 도루, 아베 요시오의 퇴계관을 계승하여, 특히 황도유학으로의 의도된 사상사를 무비판적

32 그래도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민족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 통일 독립국가 건설의 중요성을 작품으로 피력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과거 행적을 은폐하거나 미화하기 급급했던 다른 친일적 조선인 엘리트들과는 차이가 있다.

으로 수용했고, 일제강점기에는 ‘현실파악’을 주장하며 ‘성진’ 참여를 촉구했다(이경배 2023, 169-171). 해방 이후 박종홍은 ‘민족중흥’과 근대 국가건설의 주체로 ‘우리’, 즉, ‘민족’으로 제시하면서, 발화와 행동의 주체는 민족 혹은 국가일 뿐이고 구성원인 시민 개인은 수동적 청취자이며,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명령은 시민 개인의 숙명적 사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총화단결’과 ‘반공 민족주의’를 외치는 박종홍의 국가주의는 ‘우리-민족’으로부터 이탈과 이탈을 용납하지 않는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했다(이경배 2023, 175-177).

물론 국가와 민족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관념이 1937년 멸사봉공 표어로 인해 생겨나지는 않았다. 집단이나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부터 개인의 희생은 필연적이었다. 도시의 탄생과 농경의 시작이라는 ‘문명’의 이면에는 자유롭게 살던 인간이 강제로 잡혀 와 고되게 노동해야 하는 현실이 있었다(스콧 2019, 201-235). 즉, 국가와 문명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을 집단과 공동체에 맞게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했다.

근대의 충격 이래 구한말부터 국가의 독립이 위협받자, 민족 담론이 개인 담론을 억압했다(한승완 2015, 308-309). 20세기 초부터 ‘개인’ 관념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민족-사회를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존재였다(윤상현 2019, 219-220). 해방 이후에도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개인보다는 민족과 국민이 우선적으로 호명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일본도 마찬가지로 ‘개인 석출(個人析出)’의 과제가 전후에도 계속 남아 있다(한승완 2015, 309).

문제는 일제 과시즘기에 나타난 멸사봉공이란 표어는 개인보다 국가나 민족을 우선한다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즉, 침략전쟁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과격화된 행위조차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합리화하고 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극단까지 요구했던 사례였다. 그런데도 이 극단적인 표어가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나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힘쓰기’라는, 일견 해롭지 않아 보이는 뜻으로 사용되는 현실은 그 자체가 근대 한국 사회를 주조해 낸 근대성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교적이지 않은 탈유교적인 속성과 세계 시장에 편입되면서 자본주의로 근대

화되는 정도를 넘어서 파시즘적인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로서 동원되었던 수준의 식민지 근대성이다.

IV. 결론

본 논문은 1937년 이후 등장한 멸사봉공 표어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했다. 첫째, 제국주의 일본의 성격이 파시즘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했다. 파시즘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정의내리고 규정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일본학계에서는 일본 파시즘론을 부정하는 시스템사회론 등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략전쟁과 학살 등의 과격화 현상과 이를 추동하는 세력이 존재했으므로 제국주의 일본은 충분히 파시즘의 기능적 등가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전제에서 멸사봉공의 의미장과 당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추출한 파시즘의 발언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멸사봉공 표어의 파시즘적 성격을 분석했다. 파시스트의 지도자들은 폭력과 전쟁을 추구했으며 이를 위해 ‘개인의 완전한 공동체 귀속’을 주장했는데,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에서 보이는 목표와 방법, 의도와 대단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멸사봉공은 제국주의 일본의 과격화한 파시즘적 성격을 단적으로 표상하는 표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멸사봉공 표어가 과연 유교적인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였다. 먼저 일부 조선인 엘리트가 조선인에게 익숙한 유교적 표현을 빌려와 멸사봉공을 외친 사례를 분석하고 유교적 이념이 담긴 표현인 선공후사나 견위수명 등과 비교했다. 이를 통해 일본의 공과 사 관념에서 기원한 멸사봉공 표어는 윤리적 가치판단이 없었으며, 봉사해야 할 대상은 파시즘적인 제국주의 일본임을 확인하였다. 즉, 멸사봉공이란 표어는 극단적 국가주의와 유교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평할 수 있다.

다음으로 멸사봉공을 외친 조선인 엘리트의 발언을 분석하여 그들이 멸사봉

공 표어로 표상된 일제 파시즘을 내면화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동원이 본격화되어 조선인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지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봉공을 받는 입장이거나 그렇게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기에 멸사봉공의 이념을 내면화할 개연성은 충분했다. 해방 이후에는 파시즘적인 침략전쟁 미화와 전쟁 동원 선동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겠지만, 파시즘적 일본제국의 제도와 문화가 다시 민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재현되었다. 따라서 멸사봉공 표어는 탈유교적이며 파시즘적인 식민지 근대성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문 이외의 잡지 기사 등 더 많은 사료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방법론의 측면에서 멸사봉공 표어가 끼친 영향력을 조선인 엘리트의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했다는 점도 한계이다. 게다가 일제 파시즘과 근대성이라는 복잡하고 방대한 주제를 논문 한 편에서 다루다 보니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아직 1937년에 등장한 멸사봉공 표어가 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서경』, 『논어』, 『사기』

『매일신보』

『매일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나인호. 2011. 『개념사관 무엇인가 -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미조구치 유조 지음. 고희탁 옮김. 2013. 『한 단어 사전, 공사』. 푸른역사.

박명규. 2009. 『국민 · 인민 · 시민 -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변은진. 2013. 『파시즘적 근대체험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 선인.

스콧, 제임스 지음. 전경훈 옮김. 2019. 『농경의 배신』, 책과함께.

스콧, 제임스 지음. 전상인 옮김. 2020.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은닉 대본』. 후마니타스.

윤해동, 황병주 엮음. 2010.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 함께.

장문석. 2010. 『파시즘』. 책세상.

정병욱. 2013. 『植民地 불온열전: 미친 생각이 뱃속에서 나온다』. 역사비평사.

패스모어, 캐빈 지음. 이지원 옮김. 2016. 『파시즘』. 문학동네.

팩스턴, 로버트 지음. 손명희, 최희영 옮김. 2005. 『파시즘, 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 교양인.

포이케르트, 테를레프 지음. 김학이 옮김. 2003. 『나치 시대의 일상사 - 순응, 저항, 인종주의』. 개마고원.

한민주. 2013. 『권력의 도상학: 식민지 시기 파시즘과 시각 문화』. 소명출판

김경미. 2006. “일제 파시즘 교육체제의 재생산 구조 - 해방 전 · 후 국사교과서의 논리구조를 중심으로.”
방기중 편.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해안.

김경욱. 2010. “공공성(公共性) 관점에서 본 일본(日本)의 전통적 공(公) · 사(私)관.” 『일어일문학연구』
73-2.

김소령. 2008. “한말 계몽운동기 교과서(教科書) 속의 “國民” 인식.” 『대동문화연구』 63.

김유철. 2015. “공과 사.”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재용. 2003. “‘멸사봉공’으로서의 친일 파시즘 문학 - 채만식의 친일과 내적 논리.” 『실천문학』 69.

김정현. 2008. “동아시아 공(公)개념의 전통과 근대 공동체의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김학이. 2009. “롤프 라이하르트의 개념사.” 박근갑 외.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김효신. 2007. “이탈리아 파시즘과 일본 파시즘 비교 소고.” 『이탈리아어문학』 21.

나미키 마사히토(竝木真人). 2010.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공공성’ 검토.” 윤해동, 황병주 엮음.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 함께.

나인호, 박진우. 2005. “독재와 정치종교-독일 나치즘과 일본 파시즘의 상징의 정치.” 『대구사학』 79.

문경득. 2023. “일제 파시즘기(1937-1945) ‘멸사봉공(滅私奉公)’ 표어의 의미장.” 『역사와 담론』 105. 호

서사학회.

- 박근섭. 2013. “수양론과 북벌론의 불협화음- 송시열과 효종.” 『교육철학』 51.
- 박한규. 2008. “열광의 정치-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 『대한정치학회보』 15-3.
- 방기중, 전상숙. 2006. “일본파시즘 인식의 혼돈과 재인식의 방향-최근 일본학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방기중 편,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해안.
- 볼프강 쉬이더, 최호근 역. 2002. “20세기의 전시체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비교.” 『사총』 55.
- 안자코 유카(庵達由香). 2001. “일본(日本) 파시즘론 연구동향-일제말기 식민지 조선과 관련하여.”
『역사문제연구』 6.
- 윤상현. 2019. “관념사로 본 1910년대 ‘개인’ 개념의 수용 양상-유명론적 전환과 개체로서 ‘개인’.” 『인문논총』 76-2.
- 이경배. 2023. “퇴계학과 국가주의.”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斯文』의 유교 담론과 근대 동아시아』, 전주, 10월.
- 이승환. 2002. “한국 및 동양의 公私觀과 근대적 변용.” 『정치사상연구』 6.
- 이원식. 2021. “봉공의 역사와 의미.”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8.
- 이정용. 2008. “1930년대 일본 육군의 파벌 항쟁.” 『한일군사문화연구』 6.
- 조관자. 2010. “파시즘적 공공성의 내파와 재건.” 윤해동, 황병주 엮음,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 함께.
- 조관자. 2017. “일본 우익의 국가주의와 아시아주의 연구-기타 잇키의 국가개조론과 이시와라 간지의 쇼와유신론.” 『한림일본학』 30.
- 하중문. 2009. “일본의 쇼와공황과 민주주의의 엇박자.” 『역사비평』 87(2009 여름호).
- 한승완. 2015. “한국 근대 공론장과 개인의 문제.” 『사회와 철학』 30.
- 김영무. 1941. “南總裁 烈火 같은 訓示로 滅私奉公의 決意表明- 一層奮發 -金田英武氏 談,”
『매일신보』(11월 27일)
- 김태흡. 1938. “[一日一人] 滅私奉公.” 『매일신보』(04월05일)
- 김활단. 1941. “南總裁 烈火 같은 訓示로 滅私奉公의 決意表明-全民衆 奮起之秋-女性界 代表 天城活蘭氏 談,”
『매일신보』(11월 27일)
- 송금선. 1940. “『新生活-절대로 흰 옷을 안 입고 전력을 다해 멸사봉공.』” 『매일신보』(11월 19일)
- 심명섭. 1941. “宗教界의 臨戰體制⑫, 敬神愛隣의 精神, 大同團結로 滅私의奉公(上).”
『매일신보』(09월 12일)
- 심명섭. 1941. “宗教界의 臨戰體制⑬, 敬神愛隣의 精神, 大同團結로 滅私의奉公(中).”
『매일신보』(09월 13일)
- 심명섭. 1941. “宗教界의 臨戰體制⑭, 敬神愛隣의 精神, 大同團結로 滅私의奉公(下).”
『매일신보』(09월 14일)
- 유각경. 1941. “『내가 본 米國 女性 敵國 女性의 批判 - 개인 만족 제일 멸사봉공을 모른다.』”

『매일신보』(12월 23일)

유진오, 1939. “(全體主義의 諸相) 全體主義法理論의 輪廓 - 權利와 自由 대신에 義務와 統制,”

『조선일보』(02월 25일)

한상룡, 1941. “南總裁 烈火 같은 訓示로 滅私奉公의 決意表明-鐵石의 決意와 團結-實踐 뿐이라는 韓相龍氏 談,” 『매일신보』(11월 27일)

한상룡, 1942. “光榮의 使命을 完遂 - 참말로 滅私奉公의 새 進軍을 하자,” 『매일신보』(5월 10일)

한상룡, 1942. “盡忠報國을 굳게 盟誓 - 感激과 感謝의 奔流 - 感激을 實踐에 滅私奉公이 있을 뿐 - 韓相龍氏 謝辭,” 『매일신보』(05월 24일)

현상윤, 1943. “學徒여 聖戰에 나서라(5) - 土는 國之元氣 - 滅私, 久遠의 生을 찾자.”

『매일신보』(11월 11일)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slogan of ‘self-annihilation for the sake of country(滅私奉公)’ during the Japanese Fascism Period(1937~1945)

Mun, Gyeongdeuk

The slogan ‘Myeol-Sa-Bong-Gong(滅私奉公)’ means ‘sacrificing an individual for the country.’ This paper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logan that appeared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First, it was confirmed that imperial Japan is fascism or functional equivalent of fascism. And by comparing the meaning of this slogan with the remarks of fascists at the time,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racter of this slogan is fascist.

This slogan, often considered Confucian, had nothing to do with Confucian ethics. It was propaganda that said individuals must sacrifice unconditionally for fascist Japanese imperialism. The intellectuals of colonial Joseon who shouted this slogan internalized extreme nationalism. Therefore, in Korea, the institutions and cultures of the fascist Japanese Empire were reproduced under the name of the nation. As a result, this slogan represents the fascist character of imperial Japan and can be said to imply de-Confucian and fascist colonial modernity.

Keywords - Conceptual history, public, private, fascism, imperialism of japan, Confucianism, modernity

(투고일: 2023년 11월 21일, 심사일: 2023년 12월 03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08일)